코스피 ▲ +24.67 (2442.51) | 코스닥 ▲ +14.33 (675.92) | 원·달러 환율 ▲ +8.00 (1434.90) | 금리(국고채 3년) ▲ +0.006 (2.530)

2024년 12월12일 목요일 전남일보

“겨울 한파보다 매섭다”…꽁꽁 얼어붙은 고용시장

지난달 광주 20대 취업자 7천명 ↓
지역 청년 고용률 전국 평균 이하
기업 64% “인건비 부담, 긴축경영”
정부, 직접일자리 확대 “신속 채용”

“‘올해에는 꼭 취업해야지’ 생각했는데 결국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채용 시장 문턱이 갈수록 좁아지니 막막하기만 하네요.”

광주 북구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고모(30)씨는 지난해 근무 중이던 회사에 문제가 생겨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시작했지만 아직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원래 하던 일과 다른 방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괜찮은 여건의 구직 공고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나이와 경력이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섣불리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으로는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간간이 면접을 본 회사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더 괜찮은 곳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결정을 미루다 보니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 현재는 채용공고가 없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채용 인원이 반토막 나면서 ‘취업 바늘구멍’이 더 좁아졌다.

고씨는 “금방 취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1년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직 기간이 길어지니 눈을 낮춰 보기도 했지만 막상 취업은 쉽지는 않았다”며 “채용공고가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는 데다가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걱정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고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져 취업 준비 여건도 나빠지고 있었다.

고씨는 “주 2~3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아끼고 아껴도 소득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금방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자취방을 정리하지도 못했다. 고물가 탓에 식비에만 3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일을 쉬고 있어도 막막함에 무기력해지니 몸과 마음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지역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다가올 한파보다 얼어붙은 채용시장이 더욱 차갑다. 올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청년 고용률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채용 문이 굳게 닫힌 탓이다. 내수부진 장기화로 인해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기존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내년도 취업시장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광주지역 올 3분기 취업자 수는 77만3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전남은 101만2000명으로, 1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광주지역 20~29세 취업자 수는 9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감소했으며, 전남지역 20~29세 취업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역 20대 취업자 수는 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올 3분기 15~29세 청년 고용률은 광주 38.8%·전남 42.0%로, 전국 평균 46.4%를 한참 밑돌았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 실업률은 광주 6.2%, 전남은 6.1%로, 전국 평균 4.9%를 웃도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향후 고용시장 전망도 암담하기만 하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꾸준히 하향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239개사 CEO·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기업 경영 전망에 따르면 내년 경영 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49.7%가 ‘긴축 경영’에 나선다. ‘현상유지를 하겠다(28%)’는 답변보다 20%p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긴축 경영을 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66.9%가 내수 부진, 64%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꼽았다.

이 같은 기조는 대기업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응답한 대기업 비율은 61%로 전체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투자 계획에서도 올해보다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대기업은 58.5%로 다른 기업(32.8%)보다 25.7%p 높았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 59.8%가 ‘2026년 이후’라고 답했으며, 내년 전망 경제 성장률 평균은 1.9%로 집계됐다.

국내외 기관들도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보다 0.3%p 하향조정한 2.0%로 전망했다. 수출이 둔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탄핵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경제후행지표인 고용 지표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불안정한 고용지표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1·4분기 중 90%(약 110만명) 이상 신속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다운 기자

롯데百, 한우 50% 할인행사 롯데백화점은 13일부터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점(일산, 김포공항점 제외)에서 ‘연말결산 Meat Week 고객 감사제’로 한우 전 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1년 중 단 한 번 진행되는 행사로, 롯데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한우를 연중 최대인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한우 구매 시 구매 금액에 따라 한우 사골곰탕 등 사은품도 함께 증정한다. 대표 부위는 등심, 안심, 채끝 등 구이 및 스테이크용 부위와 안창살, 제비추리, 치마살, 토시살 등 특수부위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미니노벨도서관’ 개관

광주테크노파크가 한강 작가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문학상,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리기 위해 본관 1층에 관련 도서 77권을 갖춘 ‘미니노벨도서관’을 개관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0일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더불어 광주의 의미를 더욱 기리기 위해 광주테크노파크 본관 1층에 미니노벨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1일 밝혔다.

미니노벨도서관은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과거 故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되새기고자 故 김대중 대통령 및 한강 작가의 도서 77권을 갖췄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시작은 아직 미약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향후 규모도 키워 나가며 더욱 활기차고 유익한 장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 미니노벨도서관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도서대여는 광주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KJ카드, ‘2024 피날레 이벤트’ 마련

모바일 상품권 증정·무이자 할부

광주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신용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와 모든 가맹점 무이자 할부 서비스 이벤트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응모 고객 대상자에게는 총 4가지 구성으로 추첨을 통해 총 3683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가 실시된다.

이벤트를 통해 △모든 업종에서 이용 고객 중 3333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2000원권) 증정 △온라인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2만원권) 증정 △음식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200명 추첨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 증정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업종에서 20만원 이상 이용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2만원권)을 증정한다.

아울러 KJ카드 전 고객 대상으로 국내 모든 가맹점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실시한다.

경품 추첨일은 내년 1월 16일 예정이며, 이벤트 응모 및 자세한 문의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 와뱅크(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동구 카드사업부장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올 한 해 KJ카드에 큰 사랑을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내년에도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FUN한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아이오닉 5 N, 중국 ‘올해의 고성능차’ 수상

현대차 아이오닉 5 N이 글로벌 주요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

현대차가 중국 베이징 리도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2025 중국 올해의 차 어워즈’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이 ‘올해의 고성능차(Performance Car of the Year)’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올해의 차는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이번 평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기자 및 인플루언서 48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총 7개 부문에서 112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이오닉 5 N은 올해의 고성능차 부문에서 211점을 받아 142점의 메르세데스 AMG C63 S E 퍼포먼스와 127점의 링크앤코 03++(LYNK&CO 03++)를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제치며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이오닉 5 N이 이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격변중인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아이오닉 5 N은 N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신세계, 강릉 빵집 ‘정남미명과’ 팝업 오픈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강릉에서 유명한 빵집인 ‘정남미명과’의 팝업스토어를 연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지하 1층에서 강릉 유명 빵집인 ‘정남미명과’의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정남미명과는 강릉에서 시작돼 유명세를 탔으며 감자, 고구마, 밤, 옥수수, 대파 등을 이용한 구황작물빵이 대표적이다.

구황작물빵은 귀여운 모양과 국내산 농산물로 속재료를 만들어 믿을 수 있고 찹쌀로 만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히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온 가족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다.

대표제품으로 감자빵, 고구마빵, 옥수수빵, 밤빵 등은 3500원, 양파빵, 마늘빵, 대파빵은 3800원, 종합 세트(10개입)는 3만2000원에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